

『순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曆)』와 고요미(曆)

-연일(緣日)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태화*

saikun25@korea.ac.kr

Contents

- I. 들어가며
 - 1.1. 다메나가 순스이(為永春水)
 - 1.2. 『우메고요미』
- II. 본론
 - 2.1. 치카마쓰(近松), 사이카쿠(西鶴)의 작품에 관련된 고요미(曆)
 - 2.2. 『우메고요미』의 시간적 배경
 - 2.2.1. 각 장면에 사용된 연일(緣日)
 - 2.3.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연일(緣日)
- III. 맺음말

Abstract

近世後期の人情本作者の代表として、まず名前が挙がるのは、為永春水であろう。春水は『春色梅曆』シリーズや『春告鳥』などの作品で成功を収め、人情本の元祖を名乗るほどの名声を得た。このため、春水人情本の三角関係から広がる濃密な恋愛場面の描写や、女性の衣装に対する細かい描写などの特徴が、そのまま人情本全般の特徴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しかし、場面の描写に集中し、時には場面と場面の時間順が逆転したりする、いわゆる春水流の構成のため、春水の構成力が疑問しされてきたのも事実である。ところで『春色梅曆』の時間的背景を分析してみると、各場面ごとに縁日を与えており、読者の内容展開を把握しやすく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また、神仏の力によって事件が解決されるのは、近世戯作の常であるが、春水は縁日を使うことによって、それなりの蓋然性を確保し読者を納得させている。そして春水は、その各縁日の様子や風物詩をつぶさに描写しておくことによって季節感をあらわし、情緒的な雰囲気をもたらし、読者が主人公の恋愛に没入しやすくもしている。したがって、春水の縁日を時間的背景に使う工夫も、春水人情本が大きな人気を納めるに重要な要因の一つであると考えられる。

Key Words : 『순쇼쿠우메고요미』, 다메나가순스이, 연일, 시간적 배경, 계절감
(『春色梅曆』, 『春色梅兒譽美』, 為永春水, 縁日, 時間的背景, 季節感)

*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시간강사. 일본근세문학전공.

I. 들어가며

1.1. 다메나가 슌스이(為永春水)

다메나가 슌스이의 본명은 사사키 사다타카(佐々木貞高)이며, 통칭은 조지로(長次郎)이다. 출생년은 불명확하나, 다키자와 바킨(滝沢馬琴)의 『저작당잡기(著作堂雜記)』(1804)에 출판사인 조지야헤이베(丁子屋平兵衛)로부터 건네 들었다며 남긴 기록에 의하면, 슌스이는 54세의 나이로 1843년 12월 23일 사망했다고 한다¹⁾. 이를 역산하면 슌스이는 1790년(寬政二)에 출생한 셈이 된다.

슌스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820년(文政三)으로, 류테 리쥬(滝亭鯉丈)의 『하나고요미 핫쇼진(花暦八笑人)』초편의 구치에(口絵)에 다메나가 쇼스케(為永正輔)라는 이름으로 2수의 쿄카를 실은 것이 최초이다²⁾. 그 외에도, 3편 삽화에 소마비토(楚滿人), 3편추가권의 서문에 첨부된 광고에는 난센쇼 소마비토(南仙笑楚滿人)라고 하는 1821(文政四)년경에 사용하던 슌스이의 호(号)가 보이는 것도 덧붙여 두고자 한다.

또한 이즈음 슌스이는 출판사를 경영하며, 에치젠야 조지로(越前屋長次郎)라는 이름으로 출판업을 시작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출판하고, 스스로도 집필활동을 벌이며, 이미 이때부터, 많은 대작자(代作者)와 조작자(助作者)를 거느리고 많은 책을 출판,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³⁾.

1829(文政十二)년, 다메나가 슌스이(為永春水)로 호를 고치며, 새로운 활동을 펼치려 하나, 그해 3월11일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세이린도(靑林堂)는 전소되고, 슌스이는 아사쿠사의 센소지(淺草寺)로 거처를 옮긴다. 1832(天保三)년, 슌스이의 재기작인 『슌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暦)』(이후 『우메고요미』)가 큰 성공을 거두자, 슌스이는 자신의 소설을 난조본(人情本)이라 칭하며, 에도 게사쿠(戲作)의 한 장르를 열게 된다.

1) 中村幸彦(1983)『春色梅児誉美』解題』『日本古典文学大系』(64卷)岩波書店、p.15.

2) 滝亭鯉丈(1820)『花暦八笑人』初編口絵、

そよ風もいとへる花の池の端に吹ぬきといふ名たれかつけけん 為永正輔

いやだといはば亦俗人の俗をうがちておかしみまんノゝたり 為永正輔.

3) 山口剛(1972)『人情本について』『山口剛著作集』(第4卷)中央公論社、p.233.

이후, 순쇼이는 다작을 위해 많은 대작자를 거느리며,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였으며, 쇼테 킨수이(松亭金水)등, 다른 닌조본 작자도 활약함에 따라, 닌조본은 1830년대의 에도 계사쿠의 대표적 장르의 하나로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1842(天保十三)년, 로쥬(老中)인 미즈노 타다쿠니(水野忠邦)가 이끄는 소위 덴포개혁(天保の改革)으로 인해, 생활의 다방면에 있어서 사치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 출판업계로 이러한 개혁의 영향으로, 많은 작가가 탄압을 받게 된다. 당대의 유명작가였던 순쇼이 또한, 1842년 2월 5일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6월 9일, 손을 묶고 생활을 하는 테구사리(手鎖)50일형을 받게 되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같은 해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닌조본의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한모토(版元) 7명에 대해서도 판목 몰수, 출판본 소각, 이익금 몰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닌조본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개혁의 물결이 지나간 후, 출판사들은 남아있던 초고를 수습하여 다시 닌조본 간행에 나서게 되나, 닌조본의 인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서서히 쇠퇴해 간다⁴⁾.

1.2. 『우메고요미』

유녀와 객의 줄다리기를 묘사하거나, 유방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객을 비웃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로, 유곽에서의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북으로서도 효용이 높았던 사레본(洒落本)이 쇠퇴한 이후, 남녀의 비련이나, 생활고를 묘사하여,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소위 나키본(泣本)이라 불리는 소설군인, 2세 난센쇼 소마비토(다메나가 순쇼이)를 비롯하여, 교쿠산진(曲山人), 하나산진(鼻山人), 기산진(紀山人), 산테 순마(三亭春馬), 쇼테 킨수이(松亭金水)등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특히 하나산진은 1825(文政8)년의 『후조쿠 수이코덴(風俗水滸伝)』, 1830(天保1)년의 『유카리노 우메(由佳里の梅)』등의 작품으로, 다메나가 순쇼이보다 높은 인기를 얻으며, 당시의 중본(中本)계사쿠(戯作)를 리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쇼이가 1832년에 간행한 『우메고요미』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순쇼이는 하나산진을 제치고 일약 최고의 인기작가에 반열에 오르게 된다.

4) 村上静人(1923)『人情本略史』人情本刊行会、pp.199-214.

『우메고요미』는 기헤(鬼兵衛)의 흥계에 빠져 쇠락한 단지로(丹次郎)를 후카가와(深川)의 게이샤(芸者)가 된 요네하치(米八)와 정혼녀인 오초(お長)의 삼각관계의 스토리와, 오초를 도와주는 오요시(お由)와 연인인 도베(藤兵衛)의 스토리, 그리고, 요시와라의 오이란(花魁)인 고노이토(此糸)와 연인인 한베(半兵衛)의 스토리가 번갈아 가며 진행되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우메고요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가 "우메고요미(梅曆)라고 제목을 붙인 이 작품은 회를 거듭함에 따라, 시간상으로도 (봄부터 시작하여)사계절을 돌아, 다시 경사스러운 봄으로 돌아오도록 장면이 배치되어있다"라고 소설속의 시간적 흐름이 1년 이상임을 지적하고 있다⁵⁾. 마루야마 시게루(丸山茂)는 "(시간적 배경이)가을인 곳이 한 곳(제13칙) 있다. 다른 대부분의 시간적 배경은 봄이다.(중략)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를 골고루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장편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움을 훼손시키는 면이 있다"라고 시간적 배경이 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⁶⁾. 반면 야마구치 다케시(山口剛)는 시간적배경의 길이는 1년정도로 짧다라고 하며, 나카무라와 마루야마의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⁷⁾.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데에는 하야시 요시카즈(林美一)가 "순스이의 소설구성법은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부분만을 모아서 시간적 순서에 상관없이 이어붙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순스이의 난조본 구성법이 일반적인 장편소설과는 달리 소설의 각 장면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뀌거나, 건너뛰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⁸⁾. 이처럼 『우메고요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 가운데, 무토 모토아키(武藤元昭)는 『우메고요미(梅曆)』라는 제목에 주목하여, 제목과 작품의 시간적배경이 관련이 있으며, 제목처럼 소설의 대부분의 시간적 배경이 봄, 그중에서도 특히 정월임을 지적하고 있다⁹⁾. 무토씨의 분석대로 순스이가 『순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曆)』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남녀간의

5) _____ 『春色梅児誉美』解題』『日本古典文学大系』(64卷)岩波書店、p.17.

6) 丸山茂(1978)『春水人情本の研究』桜楓社、p.129.

7) _____ 『人情本について』『山口剛著作集』(第四卷)中央公論社、p.236.

8) 林美一(1970)『為永春水の『春色初音之六女』』『国文学解釈と鑑賞』435、p.75.

9) 武藤元昭(1997)『春色梅児誉美』の成立』『近世文学俯瞰』(8)汲古書院、p.324.

연정묘사를 암시함과 동시에 소설의 주된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순쇼이는 ‘봄’이라는 의미만을 위해서 고요미(曆)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일본의 달력은 단순히 날짜만 알려주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길흉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 하나였다. 이러한 고요미(曆)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걸맞게, 『우메고요미』서문은, 다음과 같이 고요미에 사용되는 용어로 꾸며져있다.

우메고요미 서

남쪽으로 뻗은 매화나무 가지에 눈이 쌓일 무렵, 한 송이씩 피는 매화꽃. 이 꽃을 세어보며 길한 방향(吉方)에서 삼경보주(三鏡寶珠)의 은혜(惠方)가 있기를 빈다. 정월 초에 판매하는 서적의 출판은 다원옥녀(多願玉女)의 때와 맞으니 아니 좋을소냐. 책의 판매량을 관장하는 색성옥녀(色星玉女)쪽을 보니, 책을 짠 종이봉투와 책 표지에 인쇄된 색감도 좋구나. 천성옥녀(天星玉女)의 덕택으로 운이 좋은 방향에서 고객이 오니, 설빔을 처음 차려 입는다.

대저, 팔장신(八將神)의 방위에 어긋나지 않는구나. 책력에서 말하는 건(建)은 책 제본에 좋고, 평(平)은 표지가 매끄러운 것을 뜻하고, 제(除)는 독자가 그림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것을 막으며, 파(破)는 출판 허가를 뜻한다. 책의 가격을 정(定)한 날에, 집(執)이란 좋은 운이 생겨(成) 수입을 거두는(納) 비를 뜻하니, 책을 펼쳐보는(開) 독자로부터 작자에 대한 좋은 평판이 출판사의 창고에 가득 차기(滿)를 바란다. 천은(天恩)과 월덕(月德)의 대길일(大吉日)이로구나.

어느 계절에나 있는 토왕(土旺)의 기간 동안은 물론, 춘하추동 어느 때고 출판이 멈출 때가 없고, 멈추지 않는 주문에 책을 추가로 인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과한 내 멋대로의 생각일까. 그런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책의 판매 부수는 한이 없구나. 독자 제현(諸賢)이여, 외유(外遊)하지 않은 날에는 부디 이 책을 읽으며 즐기시고, 마치 매화향기가 퍼지듯 다른 분들에게도 책을 알려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애호해 주시기를 사방의 신들께 빕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금신(金神)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생겼던 지난 삼사년간의 재난도, 마치 살얼음이 녹아 봄날의 물(春水)이 되듯이 풀려, 봄날의 물(春水), 즉 순쇼이가 세상에 가득차는구나.

제철을 만나 웃는 듯 피어나는 매화꽃, 분에이도(文永堂: 『우메고요미』출판사명-필자 주)의 후원과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重信: 『우메고요미』삽화가-필자 주)의 미인화를 곁들였으니, 부디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기를(바라 마지 않는다). 좋은

햇볕에 활짝 핀 매화 가지를 들어, 월요성(月曜星)의 영전에 바치고 일양래복(一陽來福)을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붓을 들다.

때는 덴포(天保) 임진(壬辰:1833)년. 춘정월의 발행에 맞춰 동짓날밤에 벼루에 먹을 갈고 붓을 적시다.

에도(江戸)의 은자(市隱) 교쿤테(狂訓亭)

순스이(爲永春水) 적다.(쉽표, 마침표, 밑줄, 중략표시는 필자에 의함 이하 同)

밑줄을 친 부분이 고요미(曆)의 용어 중에서 주로 길흉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역주(曆注)이다¹⁰⁾.

"길한 방향(吉方), 은혜(惠方)"란 그 해의 세덕신(歲德神)이 머무는 방위로, 세덕신이란, "삼경보주(三鏡寶珠)"로 불리는 "다원옥녀(多願玉女),"색성옥녀(色星玉女),"천성옥녀(天星玉女)"와 함께 고요미(曆)의 표지에 그려진다. "다원옥녀(多願玉女),"란 주문 여행에 관련되므로, 책이 여행을 떠나는 출판과 관련짓고 있으며, "색성옥녀(色星玉女)"란 의복과 관련되므로 책의 "종이봉투와 책 표지에 인쇄된 색감"에 빗대고 있다. 또한 "팔장신(八將神)"이란 행동의 길흉을 관장하는 팔신(八神)을 말하는 것이며, "건(建)," "평(平)," "제(除)," "파(破)," "정(定)" 등은 12직(十二直)이라 불리는 것으로, 고요미(曆)의 상중하단중 중단(中段)에 배치되므로 중단(中段)이라고도 불리는 용어로 "팔장신"과 함께 길흉을 점치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역주와 길흉을 점치는 용어로 서문을 꾸미는 것으로 책이 잘 팔리기를 바라는 순스이의 바람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II. 본론

2.1 치카마쓰(近松), 사이카쿠(西鶴)의 작품에 관련된 고요미(曆)

순스이가 고요미(曆)를 작품의 제목을 사용한다던지, 고요미 용어를 이용하여, 글을 꾸미는 수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고요미(曆)와 그 용어

10) 역주(曆注)에 관한 설명은 山口謙二(1999)『こよみ事典』東京美術, 岡田芳朗(1982)『曆ものがたり』角川書店을 참조하였으며 이하의 역주에 대한 설명에도 동일하다.

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으로서는, 1684(貞享1)년 10월 28일에 800여년간 사용되어온 당나라의 선명력(宣明曆)을 시부카와 하루미(渋川春海)의 조쿄력(貞享曆)으로 바꾼 조쿄개력(貞享改曆)을 소재로 한 치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과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조루리(淨瑠璃)가 존재한다.

조쿄개력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치카마쓰와 사이카쿠는, 개력의 1년 후인 1685(貞享2)년에, 사이카쿠는 조루리 『고요미(曆)』를, 치카마쓰는 이에 대항하여, 『겐조노 테나라이 나라비니 신고요미(賢女の手習并新曆)』를 썼다.

사이카쿠의 『고요미(曆)』는, 651(白鳳2)년 4월 1일, 천문박사인 키즈라 히로노부(木津良広信)의 상소에 의해, 개력(改曆)을 행하려 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추나곤(中納言)인 카네마사(兼政)의 기호력(儀鳳曆)이 채택됨에 의해, 오오토모 타나노리(大伴忠頼)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칙령에 의해 관측을 위해 후지산에 간 카네마사와 히로노부는 타다노리의 계약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되나, 최후엔 타다노리의 악계가 밝혀지며 권선징악의 결말을 맺는다는 내용이다.

개력(改曆)을 소재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요미(曆)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제1회의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을 가져와 조쿄개력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¹¹⁾, 제3회의 카네마사와 히로노부가 후지산에서 천문관측을 하는 장면에서 1년의 모습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령(月令)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면 정도가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¹²⁾.

한편, 치카마쓰의 『겐조 테나라이 나라비 신고요미(賢女手習并新曆)』는, 엔유천황(円融天皇)의 시대에, 개력(改曆)을 위해서 후지와라노 사네카타(藤原実方)와, 야스쿠니(安国)는 동서로 과견되어 천문관측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사네카타의 연인인 루리히메(瑠璃姫)와 타치마루(太刀丸)가 아버지의 원수인 야스쿠니를 예조(蝦夷)에서 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11) 『日本書紀』卷二『冬十月、百濟僧觀勒來之。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遁甲方術之書也。是時、選書生三四人、以俾學習於觀勒矣。陽胡史祖玉陳習曆法。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山背臣日立學方術。皆學以成業。』

12) 井原西鶴『曆』第3回『正月の山のすがたほそまゆつくるうすがすみ(중략)二月は雲に入鳥のわかれや(중략)卯月はさくや水車の(중략)五月の空はむめの雨(중략)六月はふじまふで(중략)七月はたなばたの(중략)もち月のこよひしも(중략)きく月は(중략)十月は山路きのふしくれして(중략)霜月ははなをこがらしの(중략)年のくれには野も山も雪にふぜいをうばゝれてかれ。』

이작품은 사이카쿠의 『고요미(曆)』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의 작품인 『신고요미(新曆)』의 부분을 합친 작품이며, 그 결과, 고요미(曆)에 관련되는 부분은, 발단인 제1단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후 약 354일의 시작. 새해에 빛나는 천사일(天赦日) 조용한 바람이 살랑이는 복일(復日)

에 흐려지는 봄날의 귀축일(鬼宿日). 백성의 납일(納め)은 만배일(万倍日). 천황의 치세에 소임을 다하는 대명일(大明日). 신에게 길하다는(神によし) 이세고요미(伊勢曆), 미시마고요미(三島曆)의 문자(文字)도 두둑구나(하략).

위 용례에 사용된 "천사일(天赦日)", "귀축일(鬼宿日)", "납(納)" 등은 고요미(曆)의 중단(中段)과 하단(下段)에 사용되는 역주(曆注)이며, 이에 덧붙여 "이세고요미(伊勢曆)", "미시마고요미(三島曆)" 등,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여러 고요미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카마쓰는, 위와 같은 고요미에 사용되는 용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꾸미는 방법을, 1715(正徳5)년에 초연(初演)된 『다이쿄지 무카시고요미(大経師昔曆)』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다이쿄지 무카시고요미』는 1683(天和3)년 9월22일, 교토 아와타구치(粟田口)에서 처형된 대대로 책력을 만드는 일을 맡고 있는 다이쿄지가(大経師家)의 오산(おさん)과 모헤(茂兵衛)의 불륜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고요미의 용어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다이쿄지 무카시고요미』 하권의 「오쿠단바 카리아(奥丹波仮屋)의 단(段)」에 삽입되어 있는, 「오산 모헤 고요미 우타(おさん茂兵衛曆歌)」로, 고요미의 용어로 문장을 장식하는 방법이, 앞서 제시한 『우메고요미』서문의 용례와 유사하다¹³⁾.

13) 「おさん茂兵衛曆歌」(『大経師昔曆』下巻)「それを杖ともはしら曆の紙破れて、向ふそなたは都の恵方、二人が身には金神と、思ひ返せば胸ふさがり、月ふさがりの駒の足、隙ゆく、駒の世のたとへ、八十八夜はおよびなき、年は十九と二十五の、名残の霜と見上ぐれば、空に、知られぬ露の雨、はらノゝほろノゝ縄目に伝ひ、靴坪に伝ふ涙の十方暮、泣くノゝ引かれ、行く姿、余所の見る目も、あはれなり。人目盗みて顕れて、不義ちやのなんのかのえ申(庚申 筆者注)、今日は明日のきのえ子(甲子)と、知らで逢ふ夜のその報い、世上の口に歌はれて、合せて見ても合はぬ仲、丸い苧小笥に角の蓋(중략)あれ不義者と危日、つひに命の滅日、湯殿始に、身を清め、新枕せし姫始、かの着衣始引きかへて、引かるゝ駒のくら開き(蔵開)、思へば天一天上の、五衰八專間日もなし、たゞ何事もかんにちと、声も、涙にかきくるゝ(중략)思へばわ

『다이쿄지 무카시고요미(大經師昔曆)』는 오산과 모혜의 33주기를 추도하기 위해서 1715(正徳5)년 상연된 작품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들은 처형을 당하나, 작품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요미 용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수식하는 기법은 순스이가 『우메고요미』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이 아니며, 『다이쿄지 무카시고요미(大經師昔曆)』등, 이전의 작품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방법이었다. 이러한 작품 중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우메고요미』에 영향을 끼친 소설로, 류테 리조(滝亭鯉丈)의 곳케이본(滑稽本)인 『하나고요미 핫쇼진(花曆八笑人)』(1820)을 들 수 있다. 류테 리조(滝亭鯉丈)는 『하나고요미 핫쇼진』4편 서문에서, 순스이의 제자인 토센쇼 토마비토(東船笑登滿人)가, “하나고요미(花曆)라면 빛나무에도 오르는 류테는, 내 스승인 료쿤테(狂訓亭)의 형으로서(花曆なら桜木にいよ／＼登る滝亭主人は、吾師狂訓亭の兄にして)”라고 밝히고 있듯이, 순스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작자이기도 하다.

『하나고요미 핫쇼진』에는 초편에 있는 료카(狂歌) 2수를 포함하여, 3편의 구치에(口絵)와 서문에 있는 광고에 순스이의 이호(異号)인 난센쇼 소마비토(南仙笑滿人)의 이름이 실려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순스이는 『하나고요미 핫쇼진』의 집필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에게 골계적인 웃음을 주려하는 곳케이본(滑稽本)에 속하는 『하나고요미 핫쇼진』은 1820(文政3)년에 초편이 간행된다. 권두에는 당시의 고요미를 이용하여 작품을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핫쇼진 유행일(八笑人遊行日)”이라고 이름을 붙여, 각 권의 출판년도에 맞춰서, 각 권에서 그리고 있는 계절의 풍경과 행락지를 알리고 있다. 그 항목은 8개로, 다음과 같이 초편 간행년인 경진(庚辰:1820)년부터, 8년 후인 기해(己亥:1827)년까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을 통해 원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しが嫁取よし、我が昔の元服よしの日取りもよしやあしに驚、裾の模様も絵に写し、筆につらねて、末の世に語り、續けて聞及ぶ。”

(표1)

| 冬秋夏春 | |
|---------------|--------------|
| 八笑人遊行日 | |
| 庚辰年ハ 飛鳥山の花の雲 | 辛巳年ハ 角田川のはな筏 |
| 壬午年ハ 高田の里の蛭がり | 癸末年ハ 両国川の涼ふね |
| 甲申年ハ 百花園の秋七草 | 乙酉年ハ 海晏寺の楓がり |
| 戊戌年ハ 青楼の夜の雪 | 己亥年ハ 浅草寺の年の市 |
| 右追々出版 | |

이렇듯, 『하나고요미 핫쇼진』에 사용된, 고요미(曆)를 이용하여 작품을 꾸미는 기법은, 『우메고요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우메고요미』의 시간적 배경

순스이는 『우메고요미』라는 제목에 걸맞게, 고요미(曆)적인 요소를 작품 속에 적절히 배치하여 소설의 계절감과 내용전개의 암시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메고요미』의 내용을 요약해두고자 한다.

요시와라(吉原)의 가라고토야(唐琴屋)의 책임자였던 단지로(丹次郎)는 기헤(鬼兵衛)의 계략에 의해 하타케야마가(畠山家)의 보물을 변제해야할 책임을 지게 되어, 무코우지마(向島)의 나카노고(中の郷)에 은신하게 된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단지로를 가라고토야의 우치게이사(内芸者)이며, 단지로의 정인(情人)인 요네하치(米八)가 찾아오게 된다. 이후 요네하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후카가와(深川)의 게이샤(芸者)가 되어, 단지로를 보살핀다. 한편, 단지로의 정혼녀였던 오초(お長) 또한, 우연히 단지로와 해후를 하게 된다. 요네하치와 오초는 단지로를 두고 다투게 되고, 이에 오초를 도와주는 오요시(お由)와 도베(藤兵衛), 요시와라의 오이란(花魁)인 고노이토(此糸), 고노이토의 정인인 한지로(半次郎) 등의 인물이 더해져서, 남녀 간의 애정묘사, 삼각관계의 긴장감, 악인의 징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우메고요미』는 1832(天保3)년에, 초편과 2편이, 1833(天保4)년에 3,4편이 간행되었다. 각 편은 3권으로 이루어져있고, 한권은 척(齣)이라는 단위로 2회씩 나뉘어져 있으므로, 전4편12권24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요미혼(読本)과

같은 일반적인 근세장편소설이 서사적인 전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과 달리, 연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우메고요미』의 각 장면은 희곡의 한 장면과 같이, 제한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면의 이동은 작가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면과 장면의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비교적 크다.

2.2.1. 각 장면에 사용된 연일(緣日)

순쇼쿠는 고요미(曆)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날, 그리고 특정일에 참배를 하면 신불(神仏)과의 연으로 보통 이상의 은덕을 얻을 수 있다는 연일(緣日)을 각 장면의 시간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우메고요미』를 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제1~2책 12월 15일-묘켄보살연일(妙見菩薩緣日)

제1책은 무코우지마(向島)의 나카노고(仲の郷)에 숨어살고 있는 단지로를 요네하치가 찾아오는 장면이다. "밖은 살얼음이 낀 전답(外は田畑の薄氷)"라는 문장과 삽화에 그려진 등장인물의 복장 등을 보아, 겨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네하치(米八)의 대사 중에는 요네하치가 단지로가 있는 나카노고(中の郷) 동쪽에 위치한 혼조(本所) 야나기시마무라(柳島村) 호쇼지(法性寺)에 있는 유명한 묘켄보살에게 참배하러 나왔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요네하치가 참배의 이유로 묘켄보살의 연일(緣日)인 15일¹⁴⁾을 들고 있으므로 본 장면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이다.

요네하치 "오늘 아침 묘켄보살(妙見菩薩)께 참배하려고 집을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당신이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실 줄은 정말 꿈에서도 몰랐어요. (중략)오늘 아침 참배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보리라 마음먹고, 묘켄보살께 참배하는 15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나온 거예요. 언제나 당신을 다시 만나게 꿈 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당신이 사는 곳을 알게 된 것은 모두 묘켄보살의 은덕이네요.

14) 『江戸歳時記』卷一春之部 「毎月 妙見参 毎月朔日十五日縁日なり二十八日にも参詣あり。」

제3척 1월 3일-키소하지메(着染初)

제3척에는 "오늘은 주인이 준 아토기(跡着)를 처음 입는 키소하지메(着染初) 날이라 오전 10시경엔 모두 일어나"라는 설명이 있다. "아토기(跡着)"란 정월 초에 포주가 유녀에게 옷을 해서 입히는 일이나 그 옷을 일컫는 말이며, "키소하지메(着染初)"란, 정월 초삼일 중 하루를 골라 새 옷을 꺼내 입는 날로¹⁵⁾, 제3척이 정월초의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제4척 니치렌연일(日蓮縁日)

제4척은 단지로를 속여서 가라고토야(唐琴屋)를 뺏은 기헤(鬼兵衛)가 단지로의 정혼녀인 오초(お長)도 자신의 것으로 하려 하자, 가라고토야(唐琴屋)의 오이란(花魁)인 고노이토(此糸)가 오초를 일련종(日蓮宗)의 본산인 혼몬지(本門寺)에의 참배를 핑계로 자신의 고향인 가나자와(金沢)피신시키는 내용이다. 1846(弘和3)년에 간행된 『에도근교명승일람(江戸近郊名勝一覽)』의 혼몬지(本門寺)의 조(条)에 "조사(祖師)의 명일(命日)인 매년 10월 13일 참배객들이 군집하여, 밤을 새워 당내(堂内)에 머문다"는 기록이 있다. 고노이토는 이러한 큰 행사에 참석케 하는 구실로 오초를 도망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 장면의 시간적 배경으로 중요한 연일(縁日)중 하나인 니치렌 명일(日蓮命日), 즉 10월 13일경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제5척은 요네하치가 요시와라(吉原)에서 후카가와(深川)로 옮겼을 때 도움을 준 도베(藤兵衛)가 단지로에 대한 요네하치의 정절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눈 속의 나카우라(中裏)"라는 문장으로 겨울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제5척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만이 있고, 고요미(曆)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연일(縁日)이나 행사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다음 장면인 제6~11척의 시간적 배경이 1년 후의 봄임을 알리기 위한 연결 장면이기 때문이다. 제5척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는 것은 단지로의 연령설정이 제1척에서는"주인(단지로)의 연령은 열여덟열아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제6척에서는"(단지로의)나이, 열아홉스물의 다정한 남자"로 한 살이 더 많게 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15) 『角川古語大辞典』『着染初』항.

제6~11척 1월15일-묘켄보살연일(妙見菩薩緣日)

제6~11척에서는, 단지로와 오초가 우연히 재회하는 장면, 요네하치와 오초가 단지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장면, 오초가 단지로에 관한 꿈을 꾸는 장면, 요네하치가 늘 단지로를 찾아오는 묘켄보살연일(妙見菩薩緣日)에 오초가 단지로를 찾아오는 장면과 그 시각 요네하치는 고노이토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우선, 제6척에서는 단지로와 재회한 오초가 다음날인 15일에 단지로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으므로, 14일이 시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장어집)2층 좌석에서 내려다보니, 바깥에는 다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완연한 봄기운(중략) 단지로"올려면 오후쯤에 오는 게 좋겠어. 오전에는 집에 없을거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날 15일은 요네하치가 언제나 묘켄보살(妙見菩薩)의 아침참배를 겸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날임으로 이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제6척의 시간적배경인 14일은, 이어지는 제7척에서 "봄의 살얼음, 녹아서 기쁜"이라는 문장이 있으므로, 막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정월(음력) 14일임을 알 수 있다.

제10척은 단지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에 오초가 단지로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단지로의 "무슨 일인지 요네하치도 오지를 앓고"라고 하는 대사는, 앞서서 예를 든 제6척의 "다음날 15일은 요네하치가 언제나 묘켄보살(妙見菩薩)의 아침참배를 겸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라는 문장에 호응하는 것으로, 제10척이 묘켄연일(妙見緣日)인 15일의 장면임을 알 수 있다.

15일 아침에 단지로의 집을 찾아올 예정이었던 요네하치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요네하치가 고노이토를 찾아갔기 때문으로, 제11척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아침 이슬 머금은 벗나무에서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가 이슬에 젖은 듯, 아름답게 물이 오른 고노이토는, 손님을 보낸 새벽에 기리야가이에(霧屋が家)에서 쉬고

있다.(중략)

이토하나(いと花)가 급히 2층으로 올라와 무엇인가가 쓰여진 종이를 내밀며,
이토하나 "재봉일하는 아줌마가 방금 오이란께 드리라며 건네주었어요"라며 접
레가 쓰여진 제비 한 장을 내민다. 오이란은 놀라서 열어보며.

고노이토 "어머, 이건 평소 때의 제비와는 다르군요."

이토하나 "묘켄보살(妙見菩薩)쪽의 제비예요."

요네하치 "어디, 보여주세요."

제11척에는 명확하게 15일이 시간적배경임을 알려주는 문구는 없으나, 평소
때와 다른 "묘켄보살(妙見菩薩)쪽의 제비"라는 문장으로 제10척과 동일한 묘켄
연일(妙見緣日)의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제12~13척 -가을, 제14척-겨울

제12~13척은, 단지로를 위해서 오초가 조루리(淨瑠璃)를 읊는 조루리가타리
(淨瑠璃語り)가 되어 연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장면과, 그 연회에서 단지로와
재회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시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늦가을,
밤을 지새는 풀벌레 소리"라는 글에서 시간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4척에서도 일시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앞
서 언급한 무토 모토아키가 지적한 대로 겨울임을 알 수 있다.

우시지마(牛島) 제방의 칸막이를 흔들면서 올라가니, 겨울의 질풍에 실려오는
고후쿠지(興福寺) 저녁 종소리를 듣는 우시야 찾집. 자기가 유곽에 대해서 잘 안
다고 착각하는 촌뜨기는 게이샤가 가마에 옮겨 타고 싶은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
고,

제12~14척에서 명확한 일시는 사용되지 않고, 계절의 변화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앞선 제5척의 역할과 같이, 소설속의 시간의 흐름을 알리기 위한 연결 장
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5~17척 정월 13일-니치렌연일(日蓮緣日)

이렇듯 소설 속의 시간적 배경이 가을을 지나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돌아 오게 되는데, 제15~17척에서 그려지는 봄은 정월 13일경, 즉 니치렌연일(日蓮緣日)이다¹⁶⁾. 제 15척에는 "시절은 춘정월 10일경으로, 남쪽으로 뻗은 가지에 꽃봉우리가 맺히는 우메고요미(梅曆)의 때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초와 도베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도베 "아니, 아니, 신경 쓰지 말고 식사를 빨리 하고 먼저 가게. 언니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오초 "아뇨. 조센지(上專寺)의 조사님(お祖師)에게 참배하고 올 생각이라,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도베 "아니, 아침 목욕 후에 후타가와(婦多川)로 곧장 간단 말이야?"

오초 "아뇨. 제방 아래의 저 저택 옆의..."

도베 "음, 역시 고우메(小梅)의 저 기와굽는 집 앞의 절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도 보기보다 꽤 먼 거리일걸."

오초가 가고자 하는 조센지(上專寺)는 실제로는 무코지마(向島)의 조센지(常泉寺)이며, 도베(藤兵衛)가 말하는 후카가와 있는 조센지(上專寺)는 실제로는 조신지(静心寺)이다. 도베가 착각하였던 것은 두 사찰 모두, 니치렌(日蓮)을 봉(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치렌(日蓮)의 연일(緣日)은 13일이다. 도베가 현재 있는 무코지마에서 먼 후카가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만 의문을 표할 뿐, 오초가 "조센지(上專寺)의 조사님(お祖師)에게 참배"하러 가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춘정월 10일경"이라고 명기된 본 장면의 시간적 배경이 니치렌의 연일인 13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제18~20척 미일(巳日)-변재천연일(弁財天緣日)

제18~20척은, 오요시(お由)에게서 돈을 뺏으려하는 악당을 도베가 물리치는 장면과 단지로의 누명이 벗겨지는 장면, 도베가 후카가와(深川)의 수사키(洲崎)

16) 『江戸歳時記』卷一春之部 『毎月十三日 祖師参。』

에 있는 변재천보살(弁財天菩薩)에 가서 요네하치(米八)와 요네하치의 새로운 연적(恋敵)인 아다키치(仇吉)와의 싸움을 말리는 장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면은 연속되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18~20척의 시간적배경이 명시된 부분은 제20척에 있으며, 다음과 같다.

도베 "실은 이쪽으로 놀러온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은 미일(巳日)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수사키(洲崎)에 참배하러 가야해"

오초 "변재천(弁財天)보살이요?"

도베 "그래."

오초 "그럼 언니하고 저도 데려가주세요."

도베 "아냐, 시간에 늦어서 오늘은 안돼. 정말 서둘러야겠는걸."이라고 말하는 순간, 종이 일곱 번 울린다. 텅- 텅-.

오요시 "정말, 벌써 종을 일곱 번 칠 때가 되었네요.(오후4시경-필자 주)"

도베 "오늘은 해가 짧군."이라며 서둘러 돌아간다.

(중략)

요네하치는 이전부터 아다키치(仇吉)와의 삼각관계 때문에 단지로와도 여러번 말다툼을 하였으나, 요사이 아다키치와 단지로의 관계가 남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을 뿐 아니라, 하치만구(八幡宮)안 요릿집에서 아다키치에게 맞는 모욕을 사람들 앞에서 당하고서는, 그 보복을 위한 각오를 굳히고 오늘 밤, 미일(巳日)이긴 하나 역시 밤이라 남들의 눈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겨, 수사키의 변재천보살에게 밤참배를 가는 아다키치의 뒤를 밟아 강가를 따라 걸어가, 아다키치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요네하치, 기다려"라고 부르며 요네하치의 허리띠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라고 놀라며 요네하치가 뒤돌아보니,

요네하치 "어머, 당신은 도베님! 어떻게 여기에?"

도베, 오초, 오요시가 등장하는 장면은 종이 일곱 번 울리는 저녁 무렵이고, 요네하치와 도베가 등장하는 수사키(洲崎)에서의 장면은 밤이므로, 연속되는 시간선상의 장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일(巳日)은 변재천보살의 연일(緣日)이기 때문에¹⁷⁾, 도베가 수사키에 참배를 가야겠다는 말을 듣고, 오초가 자연스럽게 "변재천(弁財天)보살이요?"라고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江戸歳時記』卷一春之部 「巳待 年中 弁天参 洲崎 吉祥寺。」

제21~24척 봄

소설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특정한 일시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제목에 걸맞게 "자자손손 퍼져가는 향기로운 봄의 매화꽃, 여기서 그 결실을 맺음을 축복하며 경사스럽게 봄을 놓습니다."라는 봄을 상기시키는 문장으로 맺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메고요미』에는 고요미(曆)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특정일이 시간적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묘켄보살연일(妙見菩薩緣日), 키소하지메(着染初), 니치렌연일(日蓮緣日), 변재천연일(弁財天緣日) 등, 1월3일의 키소하지메(着染初)를 제외하고선 각 장면의 시간적 배경으로 대부분 신불(神仏)의 연일(緣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연일(緣日)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 연일(緣日)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각 장면의 시간적 배경을 쉽게 독자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닌조본(人情本)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을 그리는 경우에, 작자가 개입하여 이를 설명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쇼테 킨수이(松亭金水)의 닌조본, 『우구이스 즈카노 하츠코에(鶯塚千代廼初声)』(1856) 3편 중권에는 다음과 같은 부언(付言)을 통해 겐노스케(源の助)가 등장하는 장면과 오우메(お梅)가 등장하는 장면이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장면임을 설명하고 있다.

작자가 말합니다. 겐노스케(源の助)가 오우타(お歌)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과, 오우메(お梅)가 다이닌(大仁)을 만나는 장면은, 같은날 밤의 일로서, 한 시간 정도 후의 일이다. 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으나, 어린이들에게는 헛갈릴 수도 있을 까 해서, 남은 지면을 빌려 알립니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의 장면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으나, 작자의 개입으로 인해 내용전개의 긴장감과 속도감을 늦추어 버리는 단점도 있다.

순쇼쿠는, 시간적 배경으로 특정한 연일(緣日)을 사용함으로써, 작자의 설명

이 없이도 독자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임을 알릴 수 있게 하였다. 앞서 예를 든 오초가 단지로를 찾아오는 『우메고요미』제10칙과, 단지로를 찾아왔어야 할 요네하치가 고노이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제11칙의 장면은, 두 장면 다 묘켄연일(妙見縁日)임을 알리는 것으로, 내용전개의 긴장감을 떨어트리는 작자의 개입이 없이도,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임을 독자가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작품에 계절감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은 연일(縁日)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두 번째 효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순수이뿐만 아니라 다른 난조본 작가들도 이용하고 있으며, 난조본의 효시(嚆矢)로 불리는 짓펜사 잇쿠(十返舎一九)의 『세이단 미네노 하츠하나(清談峰初花)』(1819년) 에서도 확인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7~9회의 삽화에는 각각, 우에노(上野), 타니나카(谷中), 닛뵈리(日暮里)의 하나미(花見)의 정경이 그려져 있으며, 9회에 "오늘은 우에노참배(上野參詣)라고 해서, 이곳(谷中)에 들르니"라는 문장이 보인다. 우에노참배(上野參詣)는 우에노 료다이시 마이리(上野兩大師参り)를 지칭하는 것으로 매월 3일과 13일이 연일(縁日)이다. 독자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많은 참배객에 모이는 연일(縁日)을 시간적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꽃구경이 한창인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난조본 작가중 한명인 교쿠산진(曲山人)은, 『무스메 쇼쇼쿠(娘消息)』제1회 (1834)에서 다음과 같이 나리타후도(成田不動)의 연일(縁日)을 사용해서 5월의 하야바초(速場町)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리타(成田)의 숙박지인 하야바초(速場町)는, 언제나 참배객이 끊이지 않고, (중략) 오늘은 5월의 연일(縁日), 평소보다 더욱 북적거리며, (중략) 단술과 보리차, 오징어구이, 초밥과 튀김을 파는 가게가 큰길이 좁아보이도록 늘어서서 경쟁하며 장사를 하는 것도, 전부 나리타후도(成田不動尊)의 덕이다.

또한, 순수이에 뒤이어 가장 많은 난조본을 집필하였던, 쇼테 킨수이(松亭金水)는 『칸쵸 수에츠무하나(閑情未摘花)』제27회(1841년)의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10월 18일인 아사쿠사 관음연일(浅草観音縁日)의 센조지(浅草寺)주변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10월의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햇빛 따스한 10월. 오늘은 17일이라 대자대비한 사찰로 걸음을 옮기는 귀천을 불문한 사람들. 메가와나 메시(目川菜飯)도 덴가쿠(田楽)도 품질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을 정도로, 언제나 다름없는 변화한 곳. 과연 이름대로 히로코지(広小路)이긴 하나, 그 길조차 좁게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이렇듯 연일(緣日)을 사용하여 계절감을 나타내는 기법은 다른 년조본 작자들도 흔히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 작자들은 이러한 기법을 작품의 일부분의 장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치쿠요샤 킨페이(竹葉舎金瓶)의 년조본 『화조풍월(花鳥風月)』(1830년경)2편 중권에 보이는 "2월 하츠우마(初午), 미사부로(巳三郎)가 세 살이 되니, 마시바(真芝)의 이나리(稻荷)에 데리고 가서"라는 예문과 같이, 이나리진자(稻荷神社)의 연일(緣日)인 2월 초우일(初午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緣日)의 풍경이나, 2월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묘사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순스이는 『우메고요미』를 통해, 작품 전체의 장면 마다, 각각의 연일(緣日)을 지정하여, 그 연일에 맞는 계절감을 묘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스이가 연일을 사용하여 얻고 있는 세 번째 효과로는, 주인공의 불행이 해결되는 이유를 신불(神仏)의 공덕으로 돌림으로써 독자에게 권선징악의 해결을 납득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우연한 만남의 이유를 신불의 은덕으로 설명하는 기법은 년조본에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산산테 아린도(山々亭有人)의 『순쇼쿠 에도무라사키(春色江戸紫)』(1864년)제17회에는 소지로(惣次郎)와 오키누(お絹)가 재회하게 된 것을 니치렌(日蓮)의 은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소지로(惣次郎)도 함께 오키누(お絹)에게 가고자 하여, 각각 준비를 마치고 킨타(金太)에게 언제나처럼 집을 보게하고, 관세음보살에 참배를 하는 등을 하며, 오키누의 집에 도착하니, (중략) 오키누(お絹)"조사님(お祖師様)의 은덕으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평소에 오키누가 니치렌에게 참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묘사도 없이 재회의 이유를 신불의 은덕에 두고 있으므로 내용전개의 개연성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신불(神仏)의 공덕의 힘이 가장 커질 때가 각 신불의 연일(緣日)임은 당시의 독자들이 공유하는 상식이이었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들었던 『우메고요미』 제1책에서도 요네하치가 "평소의 염원이기는 하였으나, 생각지도 못하게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건 묘켄(妙見)보살의 은덕이네요"라는 대사로 둘의 재회를 신불의 은덕으로 돌리고 있으나, 그 시간적 배경을 묘켄연일(妙見緣日)로 하였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우연한 재회라는 갑작스런 내용전개에도 불구하고, 아린도(有人)의 『순쇼쿠 에도무라사키』의 장면보다 독자를 납득시키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다메나가 순스이의 『우메고요미』가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주된 이유를 남녀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연애장면의 묘사에서 찾고 있다¹⁸⁾. 젊은 여성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고 있는 닌조본에 있어서, 분명 남녀간의 애정묘사는 순스이가 인기를 얻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유행체(流行体)라 불리는 당시에 유행하는 의상(衣裳)이나 화장법 등을 충실히 묘사하는 순스이 특유의 문체도 그를 당대 최고의 인기작가로 만든 이유 중의 하나이다¹⁹⁾.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장면에 연일(緣日)을 시간적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독자가 복잡한 내용전개에도 흐름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설명적 요소와, 소설의 계절감과 개연성의 획득 또한 순스이의 『우메고요미』를 닌조본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만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8) _____ 『『春色梅児誉美』解題』『日本古典文学大系』(64卷)岩波書店、p.16.

19) 줄고(2009,10) 『為永春水と松亭金水一人情本の「不易体」と「流行体」について—』『国語と国文学』、pp.45-57.

참고문헌

- 林美一(1970) 『為永春水の『春色初音之六女』』『国文学解釈と鑑賞』435
 遠藤誠治(1987) 『建部綾足と為永春水』『俳句研究』54
 武藤元昭(1997) 『『春色梅児誉美』の成立』『近世文学俯瞰』汲古書院
 丸山茂(1978) 『春水人情本の研究』桜楓社
 村上静人(1923) 『人情本略史』人情本刊行
 山口謙二(1999) 『こよみ事典』東京美術
 岡田芳朗(1982) 『暦ものがたり』角川書店
 山口剛(1972) 『人情本について』『山口剛著作集』(第4卷)中央公論社
 井原西鶴(1685) 『暦』(『定本西鶴全集』第9卷(1975)貴重図書影本刊行会)
 近松門左衛門(1685) 『賢女の手習并新暦』(『近松全集』(第2卷)朝日新聞社)
 滝亭鯉丈(1820) 『花暦八笑人』東京大学総合図書館蔵
 『春色梅児誉美』(『日本古典文学大系』(64卷)岩波書店)
 『日本書紀』(『日本古典文学大系』(68卷)岩波書店)
 『江戸歳時記』(1893) 博文館(1838年刊本の後印)

- ❖ 투고일 : 2012.06.30
- ❖ 심사일 : 2012.07.24
- ❖ 심사완료일 : 2012.08.06